사 설

있어서는 안될 일

10월24일 일어난 조계종 총무원 점거 사태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4년만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계종 선거를 앞두고 조계사 경내의 총무원건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우리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이 사태는 물론 4년반 전에 개혁회의에 의해 종권에서 밀려난 일부 승적 박탈자들이 저지른 '일과성 사건'이길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은 "해종행위자들의 종권복권 기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총무원에 있다고 공박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불자대중이 내리는 답은 간단하다. 승가전체의 책임이란 것이다.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불교계의 선거가 이처럼 혼란상을 연출한 것은 '제도적 논리'를 떠나 승가에 대한 불자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하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낙엽 떨어지듯 신도가 떨어진다고 걱정이 태산같다. 지난날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에서 발생해 각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폭력사태가 야기한 불상사가 기억에도 새롭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군부독재시대가 지나고 문민정부라는 과도기를 거쳐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국가와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비민주적인 쓰레기를 치우고 민주적 공동체를 향해 힘을 합치고 있는 때이다.

이런 시류에 발맞춰 불교계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전근대적인 폭력적 집단행동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 불자들이 늘 자랑하는 사상이 바로 '비폭력, 평화와 자비'가 아니던가. 아무리 불만스럽고 피해의식이 있어도 종헌 종법을 따르는 '정법정신'이 필요하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출세간법인 정법을 수호하는 것은 수행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임무이다. 나아가서 세간법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불자인 동시에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속에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서 있다. 첨단과학시대, 국제 정보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전근대적인 발상과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에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근대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개혁불사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다. 아무리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어렵고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대화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교계 인사들은 깊은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세속적 정치논리,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한 정쟁을 보여준다면 중생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길을 잃게 된다. 이제라도 너와 나를 따지지 않고 보다 모범적이고 수행자다운 면모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2일로 코앞에 닥쳤다. 후보자들 간에 불필요한 중상 모략과 비방 그리고 종헌 종법을 어기는 불법선거로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려된다. 종헌 종법은 부처님 정신이다. 이 정신을 철저히 지켜 진정한 종책 대결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이를 모든 사부대중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초선 27명…종하스님 9선

조계종 종회의원 선거 투표율 57%…13개본사 무투표 당선

10월 29일 치러진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국 10개 본사에서 표대결을 실시, 전체 유권자 1966명 가운데 1123명이 참가해 평균 투표참여율 57%를 보여 비교적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94년도의 40% 안팎에 비해 17% 정도가 높아진 수치로 이번선거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지대한 관심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본사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로 전체 유권자 111명중 93명이 '한 표'를 행사해 84%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저조한 본사는 제21교구 송광사로 158명의 유권자중 61명이 투표에 참가해 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후보등록 때는 8개 본사가 정원 수에 후보자를 맡춰 무투표 당선을 예상했으나 신흥사 월정사 등 5개 본사가 교구차원에서 의견 조율을 보여 5곳이 늘어난 13개 본사에서 투표없이 당선자를 냈다. 정원이 3명인 제12교구 해인사의 경우 후보등록 막판까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관위가 등록된 후보 4명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다 끝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인사를 제외한 전국 23개 교구본사에서 완료된 투표 결과 제12대 중앙종회에서 처음 의원활동을 하게 될 초선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명인 비구니 대표 의원에서 6명이 초선의 길을 텄다. 또 제11대 종회에 이어 12대에서도 활동할 스님은 모두 42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제12대 중앙종회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거 참가하게 됨으로 보다 젊은 종회로 출발하게 됐다. 제12대 중앙종회에서 활동할 의원 스님중 30~40대에 해당하는 55명의 스님 가운데 초선의원스님이 21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당선된 중앙종회의원 중 세납과 법납이 가장 높은 스님은 직능직 율원대표로 선출된 월서스님(36년생, 56년 득도)이며 가장 많은 선수(選數)를 기록한 스님은 제23교구 관음사에서 무투표 당선된 종하스님. 종하스님은 제4대부터 12대까지의 9선 행진을 기록했다. 제5교구 법주사에서 무투표 당선된 진구스님은 승납 최연소(82년득도), 제7교구 수덕사에서 당선된 정륵스님은 세납 최연소(62년생) 의원스님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투표가 실시된 교구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마한 석호스님으로 투표인 169명 가운데 92표를 얻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한·중·일 3개국어 경전 편찬

불교우호위 합의 매년 4월 식목행사도

내년부터 매년 4월 한중일 3국이 같은 날 대규모 식목행사를 하고 3개국어로 된 경전도 발간하게 된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10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교류위는 이날 회의에서 매년 정기적인 회의와 수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수행, 학습, 성지순례등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국불교우호교류 지도자 대회와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 자료는 교류 10주년을 기해 3개국어로 합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매년 4월 개최키로 한 식목행사는 각국이 같은 날 전불교도 차원의 행사로 갖기로 했으며 수종은 장생상록수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공동사용 경전은 반야심경 등 경전을 정해 3개국어로 편찬 교류회의 등 행사때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홍파 수석대표외 7명이 중국에서 성휘(聖輝)수석대표외 6명, 일본에서 미쓰다니 고쇼(水谷幸正) 수석대표외 8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은 함께 마련한 호신불 금메달을 신재부 중국불교협의회 부비서장에게 증정하고 3국불교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임연태 기자

교구본사 주지모임 새 회장에 법장스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은 9월 27일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본사주지모임의 신임회장 선출은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지선스님(백양사주지)이 사임을 밝힘에 따른 것. <관련 인터뷰 4면>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선암사 주지에 세민스님 재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월 29일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세민스님을 재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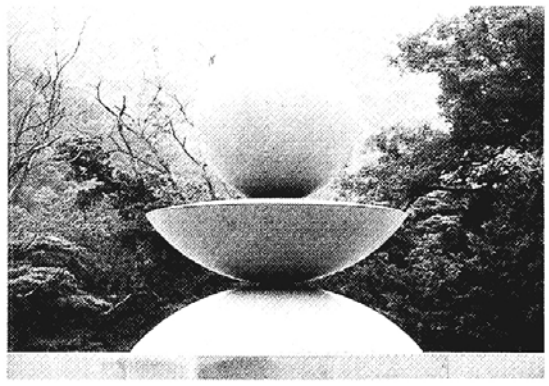
세민스님은 56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득도해 8.9.10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출강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봉은사 주지임명 놓고 승가대학인-신도 대치

후임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후임주지로 거론돼 온 효종스님(중앙승가대총동문회장)과 무상스님(전봉은사주지)이 10월 30일 오후 5시 현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50여명과 봉은사 진입을 시도하다 봉은사 대중 스님 및 신도들과 대치하고 있다.

두 스님측은 봉은사에 사중대표 및 신도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봉은사비상대책위측은 "총무원의 임명장을 받은 후에 봉은사 주지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해인사에 건립된 성철스님 사리탑.

성철스님 사리탑 완공 8일 회향법회

성철스님 사리탑이 완공돼 일반에 공개됐다.

해인사 일주문 밖 1백m 전방에 건립된 성철스님 사리탑은 조경을 제외한 면적 1백8평 규모에 높이 3.5m로, 설치예술가 최재은씨가 설계했다.

사리탑은 원(圓)·구(球)·반구(半球) 등을 기본개념으로,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자유자재한 세계에 도달하는 구도(求道)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원택스님)는 스님의 열반 5주기인 8일 오전 10시 '성철스님사리탑 준공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조계종 26개 불교대학 실태조사

△조계종포교원은 11월 한달동안 불교대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포교원은 28일 실태조사 대상 26개 불교대학을 확정하고 포교원에서 제시한 필수교과목(불교입문, 불교교리, 불교사 등) 강의 여부, 비불교행위 교습 여부, 종단에서 인정치 않는 품계의 수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부산 유마힐포교원 치사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포교원은 실태조사 결과, 불교대학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불교적 교습 행위를 한 불교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사가 JTS 北 구호 비방

'말'지에 게재

정기열 티모니움 미국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월간 〈말〉지 11월호에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과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인 JTS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륜스님과 최경숙 미국뉴욕JTS 상임이사는 10월27일 오후 참여연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열 목사가 미국뉴욕JTS가 나진·선봉지역에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개설, '영양식품 공장'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탁아소를 지원하는 '나진·선봉 어린이 영양식 구호사업'을 있지도 않은 '빵공장'으로 둔갑시켜 '빵공장이 없으며, 지원주체도 달랐다'고 왜곡보도해 JTS는 물론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시민·사회·청년단체들의 명예에 지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간 〈말〉지는 같은 날 "불교운동본부와 단체와 법륜스님의 북한동포돕기 활동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정치하나?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송월주 총무원장은 3선출마를 포기하라!

총무원장 3선 "된다""안된다"

30일 종회 앞둔 조계종 긴장감 팽배

원장측 재임중 공로 많아…법적하자 없다

재야측 유신독재적 발상…총력저지 선언

법보신문 1994. 3. 28

우리는 94년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주 스님은 또다시 종정예하와
전 종도들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종헌 제19조에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송월주 총무원장의 출마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총무원집행부와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는 결정했습니다.

'3선출마 부당'을 천명하신 종정예하의 교시에 정면으로 불응하고 종헌을 무시하는 월주스님과 송월주 총무원장후보추대위야말로 해종행위자가 아닙니까?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정진법회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을 비롯한 전 종도들의 뜻을 모아 종단을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월주스님의 3선출마를 막아내고 종단의 수행가풍을 바로 세웁시다.

■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일 시: 11월 4일 오후 2시
■ 문 의: 연대회의 사무실 (02)725-3766

불기 2542년 10월 30일

송월주 총무원장 3선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